

18일 Market Index			
코스피	2574.72	코스닥	891.29
	(-26.56)		(-7.74)
금리 (미국 9년)	3.891	환율 (원/달러)	1324.40
	(+0.041)		(-1.50)

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 가보니  
방산 초격차 자신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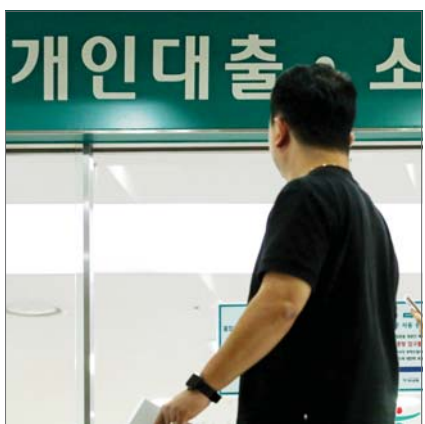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통화 긴축 - 부동산 정책 '엇박자' 가계 빚 한 달새 7조 늘어 1075조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 규모 50년 주담대 등 정책 불균형에 고금리 시대, 대출 확대 부추겨 부채 축소 위해 당국간 공조 필요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라부라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다지만 명확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상승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 2조 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9000억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증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다. DSR 규제 완화 수

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심어 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2020~2021년 부동산 급등기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디레버리징' 실패 이유로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p)를 올렸다. 치솟은 가계대출과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목표로 통화정책을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증한 가계대출 진화에 나섰다

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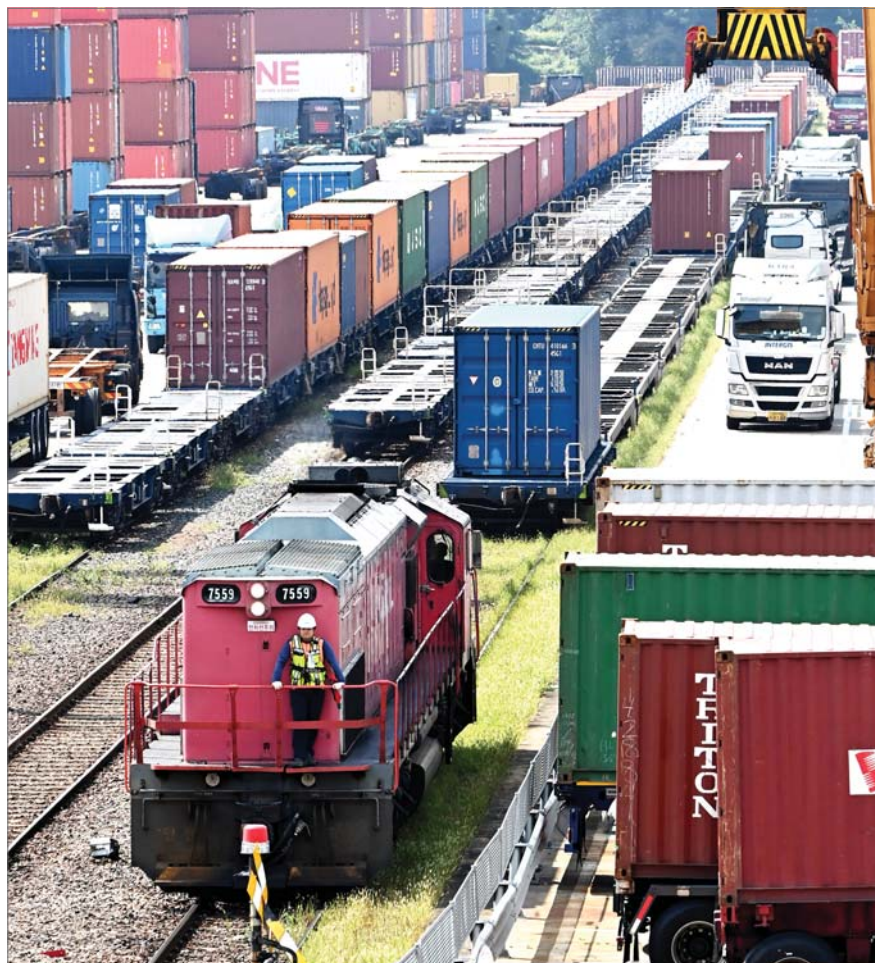
문제는 통화정책은 '긴축' 모드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서 집값 상승과 대출 확대를 부추긴 것이 금융불균형을 초래한 셈이다.

한은은 지난 6월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있고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더 누증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을 강조하며 부채축소(Deleveraging)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계치 80%를 큰 폭으로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5%다.

한은은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관련 당국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반대 방향일 땐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 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철도노조 1차 파업 종료

전국철도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종료된 1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삼성바이오 '존립 매직' 통했다 연간 누적 수주액 3조 '가시권'

BMS 등 글로벌 빅파마 14곳 확보 고객 만족 최우선, 신속 대응 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연간 누적 수주액이 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취임 3년 만에 이룬 역대 최대 기록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존립의 매직'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인 BMS와 총 2억4200만 달러(약 3213억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의약품을 2030년까지 위탁생산(CMO)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BMS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사업을 시작하면서 맞은 첫 고객사였다. 이후 이제까지 신규·중액 계약을 체결하며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1공장이 가동되던 2013년 처음 CMO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제품 수 및 서비스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계약을 맺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이 향후 7년여간 BMS의 주력 제품인 면역항암제의 생산 기지로 활용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오랜 기간 파트너 관계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 생산능력, 초스피드 생산 속도와 함께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은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존립 사장의 취임 이후 시장 수요와 고객사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MS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빅파마와의 신규·중액 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이제까지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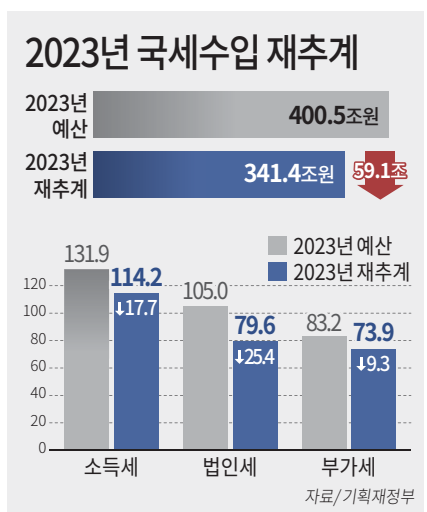
## 국세 59조 덜 걷힌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

법인세 25조 구멍... 43% 차지 기재부, 가용재원 동원 결손 대처

법인세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25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도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족분이 25조 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42.9%를 차지할 전망이다. 당초 짜놓은 법인



세수 예산이 105조원인데 79조6000억원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양도소득세가 12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각종 소득세수가 예산(131조9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은 올해 1~7월 217조6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4% 이상 부족한 규모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 한동훈 "이재명 단식 왜 하는지 본인도 설명 못하지 않나" /사진 뉴시스

▲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부동산원 노조 내부고발 있었다  
▲ 외교부 "日 '군함도' 새로운 설명조치, 끝이 아닌 과정의 시작" /사진 뉴시스



▲ '야당 빈자리'... 더불어민주당 당국회의 임의 일장 보이콧 /사진 뉴시스  
▲ 野,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대통령실 앞 '내각 총사퇴' 시위